

/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참석 여성 인권운동가 /

“한국 여성들의 용기 파키스탄 전파”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차별 철폐”

■ 파키스탄 무크타르 마이 씨



“광주에 처음 왔지만 손님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가족을 만나러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파키스탄 여성운동가 무크타르 마이(여·35)씨는 5·18의 아픔을 딛고 세계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를 일생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2007 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마이씨는 “많은 파키스탄의 여성들이 누명을 벗기 위해 불 위를 걸어야 하는 바파니(Bha Pani)나 조기 결혼 등 잔혹한 일들을 겪고 있다”면서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한국 여성들의 용기를 파키스탄 여성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이씨는 ‘ 명예범죄’(Honor Crime)로 불리는 파키스탄 관습법의 희생자다. 지난 2002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성

폭행을 당해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가해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그녀를 파키스탄의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나의 명예와 복수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명예범죄’라는 불행에 처한 수많은 파키스탄 여성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5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마이씨는 “내가 용서를 한다면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것”이라며 “끝까지 불의와 맞서겠다”고 말했다. 나무 그늘 아래서 3명의 아이들과 시가 했던 ‘무크타르 마이 학교’는 5년 만에 초·중·고·치료센터·휴식처까지 갖추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1천 명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현재 마이씨는 자신이 세운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위정림기자 jrwi@

“광주가 세계인권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 패널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25일 광주를 찾은 조라 바소(여·56)씨는 광주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세계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식을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바소씨는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소쇄원 안으로 들어오니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 잠이 스르르 밀려들 정도”라며 “광주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지배세력에 대항했던 시민과 그 시민들을 기리는 곳(국립 5·18 민주묘지)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은 와 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바소씨는 “성 차별이나 인권 유린 등 관행처럼 굳어 온 것들의 틀을 깨고 평등하

게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사람들이 자라는 환경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여성연합’ 대표인 바소씨는 여성과 어린이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소씨는 현재 인도네시아 남부에 위치한 술라웨시(Sulawesi)섬 마카사르(Makassar) 지방의 중학교 5곳에서는 올해 초부터 성(性)·인권·여성인권에 대한 교과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가 좋으면 이를 확대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또 “전 세계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노력한다면 여성의 힘이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이미지기자 emlee@kwangju.co.kr

■ 인도네시아 조라 바소 씨



묵향과 함께 커 가는 어린이들

무안 일로초 청망분교 김광속 교사

35년간 방과후 학생·주민에 서어지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광속 교사가 방과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35년간 서예를 지도, 지금까지 전국 규모대회에서의 입상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5년 무안군 일로초 청망분교에 부임한 김광속(57·사진 왼쪽)교사는 전교생과 주민들에게 서예를 지도해왔다. 김교사가 사비를 들여 빈 교실에 마련한 서예 교실에는 초등학교 15명과 유치원생 2명은 물론 지역주민 10여명도 3년째 서예를 배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제 1회 전국 학생바다 사생대회 서예부문에서 특선 1명, 장려상 2명, 입선 6명의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해 2회 대회에서는 금상 1명, 특선 10명, 장려상 1명, 입선 7명의 성과를 거뒀다. 김교사는 교사 첫 부임이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방과 후 서예 지도를 해 왔다. 그동안 김교사 지도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과 주민들이 500명을 넘는다. 김교사 역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입선,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 1회와 입선 4회 등 다수의 입상 경력과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교사는 “시골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방과 후 별다른 학습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서예를 지도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서예를 배우게 되면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갖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무안=이윤희기자 whlee@



광주염주로타리클럽 13대회장에 김정근씨
김정근씨가 26일 광주 삼복회관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염주로타리클럽 정기총회에서 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우리는 한가족... 힘내세요”

‘기부천사’ 문근영
망골 아동센터 깜짝방문

“우리는 이제 한가족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건하게 공부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영화배우 문근영(20)씨가 최근 안광민 해남군 송지면 망골아동센터를 지난 27일 예고없이 ‘깜짝 방문’ 했다. 문씨는 MBC ‘가집없이 하이킥’의 김혜성씨와 함께 아이들과 발자구 등 공놀이를 하며 3시간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행한 모 피자회사 직원들도 즉석 피자파티를 열었으며 문씨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미리 준비한 잔여로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문씨 일행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200여 명의 학생과 주민 등이 몰려들어 두 사람을 반겼다. 문씨는 일일이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꼬마아이는 안아주며 정다운 표정을 보였다. 문씨는 아이들에게 배드민턴 라켓과 컴퓨터 게임 세트, 축구공·배구공·농구공, 윌라후프 등을 선물했고, 아이들은 ‘근영누나 만세’를 외쳤다. ‘망골 아동센터’는 문씨의 ‘아름다운 기부’로 마련됐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배요섭(51)씨 목사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망골 공부방’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4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를 함께 했다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숙식까지 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집 주인이 건물 매각 결정을 하면서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공부방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딱한 사연을 광주일보 보도(2006년 10월 19일자)를 통해 접한

신문윤리위원장에 정귀호 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상 제주일보 회장)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 83차 이사회를 열고 신문윤리위원장으로 정귀호



정귀호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대법관을 지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김복규(전남매일 교문)씨 장남 성훈군 주재섭씨 자녀 지역양=30일(토) 오전 11시50분 상무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박일남씨 차남 성배(비디오 저널리스트)씨 박점범씨 자녀 김미향 양=30일(토) 오후 1시 상록웨딩홀 4층 장미홀.
▲윤숙정(화순 농주초교 교장)씨 차남 김무성(KBS 목포방송국 PD)군 김영웅(4·19 문화원장)씨 장녀 해정(KBS 광주총국 기자)양=7월1일(일) 낮 12시 KBS 광주총국 공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체·법률지원 등 상담은 광주지방 검

- ▲(사)국제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송원고 총동문회 월례회 및 단합대회=7월1일(일) 오전 8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011-212-2900
▲담양 향평목초교 29회 동창회=7월4일(수) 오후 7시 일전식 회집. 010-6688-8983
향우회
▲재광 관산을 향우회(회장 위옥환) 정기총회=29일(금) 오후 2시 금강산. 224-0808

-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 모임=7월1일(일) 오후 7시 서가내 복지. 264-9559
모집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30일까지. 품앗이체 육관. 오전 5시30분~오후 7시30분. 011-638-8284
▲해군 돌핀스 축구단 회원 모집=30일까지. 문의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011-659-6226,062-464-5340.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평가. 문의 511-0011~3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크레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요리학원 수강생 모집=조리사 자격증반·생활요리반·푸드 코디네이터반·외식 창업요리반 등 수강생

- 모집. 아빠 주말반 운영. 문의 385-0723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계림동 마사회 광주지점 2층. 문의 410-5000
▲광주인연맞기학교 치량지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제3외학 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하는 사람. 문의 227-0464
▲광주유교대학 신입생 모집=매주 월·수 수업. 문의 672-6501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

- 동 보조인 모집=북구 윤남동 체육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부음
▲변두환(국제로타리 3710지구 전 총재)씨 별세 성숙씨 부친상=발인 30일(토)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000
▲윤한봉(전 민족미래연구소장)씨 별세 신경희씨 삼배 장장씨 제씨 상=발인 30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31-8901, 019-619-9289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 특별한분양
전화 (062)521-1100